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교육관에서 8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보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2일) 오전 11시에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별이 좋은 날, 해 바라기를 하며 주님의 은총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식 당 봉 사 : 문영혜 신영신 이현숙 이윤주 박윤숙 김성은 유명남
 9/4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박경원 남창모 이소순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노우종 노준우 김인걸
 다음 주 설거지 : 전해리 김지호 김지운 고은숙
 새 교 우 : 조병익(2남) 조정연(4여) 전희수(청) 김유경(청) 박재란(7여)
 양상청(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짓을 벗게 해 주십시오.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받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불의와 거짓에 맞서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폭행당하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도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배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는 이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마11:28-30 인도자
- ♠ 교 독 문 6. 시편10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13(통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함께
- ♠ 성경봉독 I. 고후6:14-18 광권희 권사
 II. 히11:23-27 하현철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하나님을 위한 공간 이성운전도사
 II. 위대한 혼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원호 박성희 김정민 이해령 이영우 김재흥 최희영 김준우 우순덕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필순 박영희 오자영 정한구 왕영순 최종원 임 영 정경례 이진영
 한양미 조병억 조정연

월정헌금:

김문주 김순주 김용태 박정숙 백성래 이은자 이정은 이현순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김성은 변재민 이소혜 이윤석 박안수 정은선 조은나
 이준림 박찬덕 허명선 김승현 김수진 문홍일 이주율 김범진 김미현
 이경남 이영우 무명

감사헌금:

백묘현 김 극 강지은 고은석 주희선 광새롬 조소명 이봉옥 김종락
 박영신 강세기 이소애 고숙이 이유일 김미희 박준희 이기분 박규석
 전 웅 무명

녹색꿈헌금:

김준우 우순덕 윤성종 김윤정 양재성 임미심 김신애 조대원 권미숙

생일감사헌금:

이재령 윤정덕 문홍일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연합속회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아주 오래된 기억들

이향숙

손등에 때 국물 주르륵 흐르고/ 옷소매에는 코가 더께가 되고
구멍 난 양말 발뒤꿈치가 시려도/ 까만 고무신 신고 책보따리 어깨에
두르고 어매가 만들어 준/ 고무줄 치마에 짧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렸던 아주 오래된 기억

아부지 지계에 한번 올라타고 싶었고/ 그런 딸아이의 마음을 읽은 아부지
신던 나무 가지 다 내려놓고/ 어린 딸을 번쩍 들어올려 지계에 앉히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부녀가/ 즐거운 추억을 담았던 기억

해거름께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강둑에 매어 놓은 염소를 끌고 들어가면
할매 우리 손주 수고했다고 밀가루 속에
묻어 놓은 엇가락을 내 놓으시고/ 소 풀 베러 간 언니가 논둑에 매어 놓았던
소를 끌고 들어오면/ 할배 속바지 주머니에서 째지 돈을
주시던 그 까칠한 기억

고향 가는 길에 하늘과 나무가 다르게 보였고
몸빼 입은 동네 어른만 보아도/ 내 친정 부모 같아 눈가가 촉촉해지며
흄냄새가 너무 좋아 코를 실룩거리면서
아주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 둘 들이킨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홍지희 · 김지은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길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여름 행사 보고	사도행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신진식 선생
	한인철 목사	조병무 장로	유경순 권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최영혜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까닭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다.

이 두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다. 부모와 새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저 한곳에 모여 살던 동료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본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아오던 도마뱀 동네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들어와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 내고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

땅이 파헤쳐지고 숲이 무너지면서 죽어 간 도마뱀도 많았으리라. 도마뱀만이 아니라 들쥐도 다람쥐도 지렁이와 개미도 죽거나 다치고, 밤낮 없는 기계 소리에 놀라 멀리 떠나 버린 도마뱀들도 있고 동지를 잃은 새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도마뱀과 개구리와 잠자리들도 있었을 것이다. 돌아다니며 봐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땅이 다 뒤집혀져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처 어디에 몸을 숨겨 살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 도마뱀도 그런 무리 중의 하나였으리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래도 숨어 살 데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만 꼬리가 못에 박히는 끔찍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도마뱀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몸부림칠 때마다 살을 찢러오는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도마뱀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도마뱀은 어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으리라. 말도 할 수 없는 이 미물들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누었으리라.

도마뱀은 원래 사람 손에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잘라 버리고 도망치는 파충류인데 아마 꼬리를 잘라 버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던 게 분명하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 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 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겠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못에 꼬리가 박힌 도마뱀은 어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 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네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주면서 함께 살아온 3년. 그 도마뱀은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